(사)대한영양사협회
제26대 김혜진 회장 취임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김혜진, 이하 ‘협회’) 제26대 회장으로 김혜진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영양팀장(국장)이 지난 1월 1일 취임했다. 김혜진 회장은 2021년 11월 13일(토) 개최된 (사)대한영양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제26대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임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사)대한영양사협회는 1969년 창립된 국내 유일의 법정영양사 단체로 국민건강과 사회복지에 기여하고 영양사 및 식품영양에 관한 연구, 홍보 활동과 16만 영양사들의 자질향상, 권익 응호를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혜진 회장은 진취적인 리더십과 도전 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미래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건강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설 성수기 축산물 가격 및 수급 상황 현장점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가 지난 18일 오 후, 전남 나주시 농협 나주축산물공판장(도축장)을 방문하여 설 성수기 축산물 가격 및 수급 상황을 점검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현수 장관은 국내 축산물 수급 안정과 코로나-19 확산 방지 를 위해 야생 늪장 관계자의 노고를 칭찬하고 "설 명절 선물, 제수용품 등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생산자, 도축장 등 현장 노력에 힘입어 시장에 충분한 물량이 공급되고 있어 가격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도축장은 축산물 공급을 담당하는 국가 기간시설이므로 방역관리에 대한 책임이 엄중하다며, 밀폐된 공간에서 대수의 인원이 근무하는 도축장·가공장 종사자들에게 백신 3회(추가) 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촌진흥청
인공지능·메타버스 활용 ‘디지털 농업’ 현장 확산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신년사를 통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메타버스(확장 쌍방 세계) 같은 첨단 기술을 농업 분야에 폭넓게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급변하고 있는 비대면 업무 방식에 대응하여 첨단 기술을 농업 분야에 폭넓게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농업의 디지털화로 생산성과 편의성을 크게 높여
미래 농업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서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민·관 전문가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기획할 계획이다. 농업 정책, 연구개발, 현장 전문가로 외부 자문단을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박병호 농촌진흥청장은 “인공지능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농업 분야 사례를 올해 4월 개최되는 60주년 개 정 기념행사에서 선보일 계획이다.”라며 “농업·농촌을 들어싼 환경 변화에 적합하게 준비하고, 발 빠르게 대응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앞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2021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정승진, 이하 축평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1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93개 기관 대상으로 정보공개 운영 처리 실태 전반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다. 축평원은 정부기관 96개 기관 중 사전정보, 원문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등 4개 분야 10개 지표 중 거의 모든 지표에서 만점을 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는 정보제 공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정보를 제공한 성과뿐 아니라, 축산 마이데이터 개방 활성화와 축산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수요자 중심의 정보를 제공한 성과를 인정받아 ’3년 연속 정보공개 우수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정 승진 원장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공개 및 제도를 운영해 온 독특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다양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등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밝혔다.